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예배 직후, 목양실에서 구역장님들 모입니다.
- 교육부: 7/6 Friday evening 6:30pm, we will have a BBQ at church for all the volunteers who served at VBS. Everyone is welcome to join us for dinner.
- 교우동정
 - 서영수 집사님, 한주루 집사님 차녀 주경씨 가정 지난 6월21일 득남하셨습니다.
이름: Conrad 태영 Fulton
 - 손명식 집사님, 구자금 목사님 가정과, 이효정 자매가 새가정 모임을 마치고 등록했습니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나경수 집사 (시편 48편)

이번 주 친교: 전영자 권사, 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최경자 집사, 석동훈 형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8:4-8** -----인도자
 설교(Sermon)----- **“From Persecution to Joy”**-----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266장 (통200장) “주의 피로 이론 샘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 130 ----- 노미라 집사
 찬양(Choir) ----- “누군가 기도하네”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8:26-40**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복음: 하나님의 능력”**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205장 (통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문제를 넘어 (사도행전(Acts) 6:1-7)

성령충만과 표적과 기사, 능력의 말씀과 진실한 교제로 시작한 초대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 신자들과 외국에 살다 돌아와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고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들어 덮으려 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을 구제에 내놓고 실제로 섬김 사람들은 이미 거기 살고 있던 히브리파 신자들이었을 겁니다. 외국 출신이라고 홀대한다고 불평하는 헬라파 신자들을 배은망덕하다고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모으고”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했습니다.

문제 제기한 당사자들을 해결자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단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해결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혜와 헌신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입장과 생각 뿐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 온유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자며 문제를 덮어두기만 할 것도, 지적하며 한탄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본 사람들이 해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에 더해 새로운 차원의 지혜와 성숙을 배워가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교회란 불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자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성숙해져 가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결단입니다.

세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책임을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매일 구제가 원활하게 된 것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곧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데, 오늘 세움을 받은 집사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도했고, 스데반은 사울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펼치려고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계획이 펼쳐집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큰 일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다루고 해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